

해외 출장 복명서

– 노후산업단지 개선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지원 방안의
도출을 위한 해외 사례 지역 방문–

지역발전연구센터
산업입지팀

이원빈 · 김윤수 연구위원

I. 출장개요

□ 과제명 : 산업단지 지원사업군 심층 평가

□ 일 시 : 2016년 10월 7일(금) ~ 10월 16일(일) / 9박 10일

□ 장 소 : 영국(버밍엄, 캠브리지, 런던), 독일(도르트문트, 드레스덴)

□ 출장자 : 이원빈 연구위원(연구책임자), 김윤수 연구위원

□ 출장목적 :

- 해외 산업도시 중 노후산업공간을 지닌 쇠퇴한 도시가 활기찬 신성장 첨단도시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관련 재정지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방안을 조사, 전문가 면담 진행을 통해 국내 산업단지의 혁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
 - 이 중 가장 대표적인 재생사업이 금번 해외 출장을 통하여 방문하고자하는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진행 된 바로 피닉스 프로젝트(Phoenix Project)임
- 산업단지를 산업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산업단지를 생산시설 중심의 산업집적지에서 혁신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본 심층평가 수행의 평가 수행에 맞는 해외 사례 지역의 조사 및 전문가 면담
 - 영국 런던의 그린위치 반도 도심재생 지역, 캠브리지의 사이언스 파크 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 지역을 방문, 현장 조사함으로써 심층 평가 수행에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해외 출장을 진행함
- 본 심층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열악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 재정지원방안 모색하는 것인데, 실제 노후화 된 산업단지 환경을 실제로 개선한 해외 지역의 방문을 통하여 해당 사업 진행 과정의 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조사와 전문가 면담을 실시함
 - 출장대상지역은 영국 케임브리지, 런던, 버밍엄과 독일의 도르트문트, 드레스덴 모두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원을 투입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 투입된 재정지원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조사와 전문가 면담을 진행함

□ 출장지: 런던, 케임브리지, 버밍엄(이상 3곳, 영국)

도르트문트, 드레스덴(이상 2곳, 독일)

□ 출장일정

일 자	시 간	내 용	비 고
10월 7일(금)	13:25	• 인천(KAL)→런던 출국	12시간(비행) 버밍엄 숙박
	17:25 ~22:00	• 런던→버밍엄(차량이동) • 버밍엄도착 및 현지 숙소 정리 등	
10월 8일(토)	오전	• 문화산업 육성 인큐베이팅 지역 및 관련 기관 방문 - 창조산업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한 영 국 버밍엄 제조업 이전 지역 답사	버밍엄 숙박
	오후	-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도시에서 문화 산업이라는 신성장 동력산업을 활용 개발한 지역의 사례 조사 및 답사	
10월 9일(일)	09:00 ~18:00	• 연구진 연구일정 협의 및 자료 구득	캠브리지 숙박
	18:28 ~21:38	• 버밍엄→캠브리지 이동(차량이동)	
10월 10일(월)	09:00 ~18:00	•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답사 및 조사 - 사이언스 파크 현황/운영 실태조사 - 사이언스 파크의 주변 산업클러스터와 의 연계성 및 연결 기관 조사	런던 숙박
	18:00~	• 캠브리지→런던 이동(열차이동)	
10월 11일(화)	09:00 ~16:00	•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방문 - 산업구조고도화 국제 현황 면담/조사 - 구조고도화 관련 전략에 대한 관계자 면담	2시간(비행) 도르트문트 숙박
	U22175 (easy jet) 16:10~18:30	• 런던→도르트문트 이동(항공기 이동)	

10월 12일(수)	09:00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르트문트 창조경제 유럽센터(the European Centre for Creative Economy; ECCE) 방문 • 도르트문트 창업보육센터(TZDO) 방문 및 운영 실태·기능 관련 조사 	통역 1일차 차량 렌트 도르트문트 숙박
10월 13일(목)	09:00 ~1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르트문트 피닉스 프로젝트 대상지역 방문 - 산업구조고도화 관련지역 방문 답사 - 제조업에서 IT, 나노 등 첨단산업으로 구조고도화에 성공한 정책 방안 조사 	
	14:00 ~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르트문트→드레스덴 이동 (차량이동) 	드레스덴 숙박
10월 14일(금)	10:00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레스덴 실리콘 삭소니(Silicon Saxony) 답사 및 전문가 면담 - 유럽 최대 IT 클러스터인 실리콘 삭소니 방문 및 현황 조사 - 드레스덴시청 기업지원부 담당자 면담 예정 - 프라운호퍼연구소, 막스플랑크연구소 등 산업 연구 시설 시찰 - 드레스덴 지역의 창업지원정책, R&D 지원정책, 투자, 고용지원 정책 조사 	드레스덴 숙박
10월 15일(토)	10:00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레스덴 기계산업 혁신 및 구조고도화 지구 답사 - 기계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분소 답사 - 혁신 주도 기관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는 민간 연구소(ICM) 답사 예정 	통역 2일차 차량 렌트 드레스덴 숙박
10월 16일(일)	09:57~ 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레스덴→프라하 이동 ※ Dresden Central Station에서 열차로 프라하 이동 	프라하 숙박
	13:30~ 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 결과·자료 정리 및 귀국 준비 	

II. 출장 주요 내용

1. 문화산업융합지구(버밍엄) 답사

□ 버밍엄 브린들리플레이스 개요

- 버밍엄은 영국 제2의 도시로 블랙컨트리(Black Country)의 중심을 이루는 공업도시
- 산업혁명 이후 웨스트미들랜즈 공업지대의 중심도시로 성장
 - 공업지대 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운하·철도 개통을 통한 교통여건 향상이 크게 기여
 - 버밍엄 주변에 질이 좋고 값이 싼 석탄 산지가 있는 입지 조건으로 인해 공업 중심지로서의 입지 요건 충족
- 브린들리플레이스는 버밍엄의 산업중심지이며, 면적은 69,000㎡ 수준에 이르는 대규모 공장지대
- 1970년대 이후 영국 제조업의 쇠퇴로 인하여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이 지역의 건물들도 수 십 년간 방치되었음

□ 브린들리플레이스의 산업구조전환 과정

- 버밍엄 시의회는 운하에 근접하여 물이 흐르는 지형적 조건을 토대로 하여 산책길, 레저용 건축물 등을 활용한 수변 문화재생을 컨셉으로 1987년 해당 지역에 대한 재생 계획을 수립
- 이러한 쇠퇴 도심에 대한 재생 전략과 더불어 제조업 중심의 해당 지역 산업구조를 문화 및 관광 산업 등의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시

키고자하는 산업구조전환 방향 설정

- 버밍엄 내부도시의 경제 활력과 도시경제구조의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에 따라 시티센터를 중심으로 활발한 도시재생 정책을 구체적으로 계획·추진
-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여 원래 물류용으로 건설되었던 운하를 관광자원 및 문화 산업을 위한 도심자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됨
- 운하를 중심으로 국제컨벤션센터, 실내경기장, 중심상업지구(Royal Bank of Scotland, BRMB 등), 갤러리 등이 건설되어 문화 및 관광 산업 활성화에 촉매제로 활용

□ 산업단지를 활용한 도심재생의 시사점

- 버밍엄의 SPACE(the Space Organization, SPACE는 the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Artistic and Creative Enterprise의 약자)라는 조직을 통하여 기존의 제조업 업체를 문화 산업 육성 인큐베이팅이 가능한 창조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됨
 - 이러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인큐베이팅 지역으로 탈바꿈한 것은 카스타드 공장 지구의 제조업 업체들이 모여 있던 지역
 - 이 지역을 중심으로 ‘창조적 공간’을 매개로 사람이 모이고 또 사람이 모임으로써 암울했던 중공업 지역에 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공헌
 - 노후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산업혁신클러스터로의 육성 과정에서 국가 재원이 아닌 민간단체 및 민간자본의 활용을 통한 자발적 시민협력체를 구성하여 지구를 개발한 사례임

○ 버밍엄의 관광 및 문화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및 수변 공간을 활용한 기존 공장 이전적지에 대한 활용 사례는 전환기에 도심 노후산단의 활용가능 한 모델을 제공

- 도심의 노후산단의 경우 제조업에서 관광 및 문화 산업으로 산업구조 자체를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다만, 관광 및 문화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원을 산업 및 지역경제 차원에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정자 혹은 기관이 필요



수변 문화재생 지역



브린들리플레이스 지도

2.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방문

□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캠브리지 과학단지) 개요

○ 영국의 사이언스파크는 미국 실리콘 벨리의 영향을 받아 연구개발

력의 사업과 강화를 위한 과학단지 조성의 필요성에서 시작

- 당시 영국 정부는 첨단기술을 통한 산업구조 개편과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1969년)를 작성·발표
- 캠브리지 대학의 모트 위원회(Mott Council)는 캠브리지에 연구개발형의 하이테크 산업을 위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1972년 트리니티 칼리지가 보유한 부지에 사이언스파크 건립을 추진
- 사이언스파크 조성의 목적은 하이테크기업의 신속한 성장 촉진 이외에도, 대학 및 연구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이언스파크 내의 기업간 교류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및 연결 허브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 있음
-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에는 전문 인력, 기관, 연구소 등이 위치하여 소프트웨어, 의학, 전기기기, 레이저 등 첨단산업을 위한 R&D 및 사업화 기능을 담당
- 인근의 연관 산업체, 연구소 간의 상호 협력 및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함

□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의 조성 및 성공요인

- 캠브리지에 사이언스파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지역의 대학 연합이 형성되어 고급 R&D 인력과 연구 기관이 존재하여 산학협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임
- 또한 사이언스파크 조성 과정에서 트리니티대학 소유부지 52.5ha를 낮은 가격으로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주변 대학과 시너지 효과를 내었다는 점도 성공 요인

- 이외에도 기존에 이미 형성된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들이 캠브리지 사이언스파크가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시사점

-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는 미국 실리콘 벨리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으로 1969년 정부보고서에서 연구개발력의 사업화 강화 전략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 계기
- 사이언스 파크 설립의 목표는 첫째, 하이테크기업이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 둘째, 대학 및 연구소와의 교류를 꾀할 것 셋째, 사이언스 파크내의 기업간 교류를 활발하게 할 것임
- 이러한 사이언스 파크의 조성과정에서 기존 제조업 집적지역의 산업혁신 클러스터로의 변모 과정을 벤치마킹하면 재정사업과 관련한 노후 산단의 혁신클러스터로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찾을 수 있음



<캠브리지 사이언스 파크>

3.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방문

□ 국제해사기구 개요

-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안전, 해수오염방지, 선박적재화물 계량단위 규격화 등 조선·해운 관련한 국제적 표준 마련을 위하여 1948년 체결된 국제해사기구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현재 각국의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지원하고 기술 개발을 위해 스웨덴 말뫼에 세계해사대학을 설립하기도 하였으며, 해운문제 심의, 정보 교환, 조약 작성 권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총회, 지역총회,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기술협력촉진위원회, 기타 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 현재 170여 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국제정부기구 및 비정부 기구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런던에 사무국 본부가 있음

□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 면담 개요

- 최근 한국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및 해운 산업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세계적으로 조선 및 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 위기 속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기획기능을 중심으로 미래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향후 산업 조정 방향에 대한 예측·분석과 미래 대응 전략 마련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는 특정 분야에서 여전히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나, 조선 및 해운 관련 기업들의 기획 기능 구축이 부실한 상황으로 판단

- 이러한 기획 기능 부실 속에서 다른 국가의 조선·해운 분야의 최고경영진에 비하여 기획 기능을 활용한 미래 전략 수립에 최고 경영진의 전문성 및 관심도도 부족한 상황
- 산업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 과정에서 현재의 시장을 지키고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미래의 방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성장 동력 및 기술을 확보하는 것임
- 한국의 산업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불 필요가 있으며, 현재 연구 중인 충남의 산업구조고도화의 방향도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기능의 확충이라는 차원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산업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의 시사점

- 기존 제조업의 구조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 견인에 대한 획사적인 전략은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이 중요함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면담

4. 도르트문트 피닉스 프로젝트 대상지역 답사

□ 도르트문트 피닉스 프로젝트 개요

- 피닉스 프로젝트는 도르트문트 시 중심부에 해당하는 회르데(Hörde)지역에 위치하고 있던 티센크룹 제철소의 공장부지를 재개발하여 “주거와 일자리의 질을 높이자”는 모토아래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미래의 장소”로서 민자투자를 비롯하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정부와 EU의 지원아래 실행된 재개발 계획임
- 피닉스 프로젝트는 회르데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 편과 서쪽편을 개발하는 계획인데 각각 2001년과 1998년에 제철소 공장으로서의 수명을 다하여 폐쇄되었음. 동쪽구역은 기존 티센크룹 제철소의 제강공장이 있었고 서쪽구역은 용광로공장이 있었음
- 현재 동쪽구역은 토목공사를 통해 공장부지일대를 인공호수로 개발하고 그 주변지역을 주상복합건물과 신주거지역으로 개발완료 직전 단계이고 일부 주거건물공사만 진행중임
- 서쪽 구역은 나노기술과 IT산업단지 및 놀이공원등으로 개발예정이며 현재는 BMW 도르트문트 지점을 필두로 소수의 중소기업들이 입점한 상태이며 용광로 시설은 철거하지 않고 견학/관광자원으로 활용예정임
- 회르데 지역은 주요 고속도로(아우토반)과 도르트문트 공항으로의 접근성이 매우좋은 도르트문트의 교통요지이므로 개발 가능성이 높았던 지역이고 혐오시설로 남은뻘한 제철소 공장부지를 재개발하고 재활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를 한 계획임

□ 프로젝트의 추진 및 성과

- 회르데 시의 동쪽 편은 19세기 중반 정확히는 1841년부터 철강산업

이 시작되어 오늘날의 피닉스 호수가 이루어진 곳임 그리고 철강산업이 시작되고 약 10여년 이후 1852년 회르데 시의 서쪽 편에 용광로 시설이 설립되어 회르데 지역은 150여 년 가까이 도르트문트 시의 대표적 산업지역으로 자리매김했었음

피닉스 웨스트 (개발이전)



피닉스 호수(개발이전)



- 설립이후 꾸준히 발전해오던 이 지역은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완전히 파괴되고 연합국의 지원아래 근대적인 기술로 새로운 제철소가 설립되었고 생산을 확장시켜나갔음

- 에센 지역의 철광산의 입지에 힘입어 두이스부르크 시와 더불어 도르트문트 시는 라인루르 지역의 대표적인 양대 제철소로 성장해 갔음
- 최대 1만여명의 직원을 고용해나갈 정도로 성장했던 제철소는 1992년 티센크뤼 제철그룹에 합병 인수되어 폐업할 때까지 운영되었음.
- 폐업 이후 회르데 시 동서 양측의 폐 공장부지들은 지금은 나노기술 산업과 IT산업단지로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단계임.이러한 네트워크 지원의 허브 역할 이외에, 사무공간, 연구실, 워크샵 공간 등의 제공을 통하여 네크워크 허브 구축을 위한 제반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재정지원 현황

- 도르트문트 시 Dortmund
 - 피닉스 West : 도르트문트 시 13,000,000 Euro
 - 피닉스 Lake : 공장부지 매입비용 15,000,000 Euro
- 주정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 피닉스 West :
 - 지역경제원조프로그램(NRW주정부 투자) 19,600,000 Euro
 - 피닉스 Lake :
 -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州) 도시재개발프로그램 10,000,000 Euro
 - 그 외 회르데 지역 도심재정비 계획에도 투입 9,000,000 Euro

○ EFRE (Europäischer Fonds für Regionale Entwicklung)

- 피닉스 West

- EU(EFRE)지원자금 80,000,000 Euro

- 피닉스 Lake

- EU 환경프로그램 4,500,000 Euro

○ 민자투자현황

- Phoenix West

- Raith 4,500,000 Euro
- BMW 도르트문트지점 20,000,000 Euro
- Nordwest Handel AG 20,000,000 Euro
- Amprion 60,000,000 Euro (2018년 이후)
- Derwald 7,500,000 Euro (2018년 이후)

□ 재정지원 사업의 시사점

- 노후단지 구조고도화는 지역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일정 지역 공간 내에서의 산업생태계로서 중핵업종 중심의 가치사슬 구조를 근간으로 기업 간 연계구조와 혁신 자원 및 활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
- 노후단지 재생지원 사업은 산업기술혁신생태계 구축에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그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는 단지 조성은 재생사업의 주요 개념 및 기능이 될 것
- 도르트문트 지역의 피닉스 프로젝트는 주정부가 장기적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지역발전에 필요한 각종 기능들을 주변의 성장 전략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역발전 재생사업의 모델임



피닉스 웨스트 안내도



도르트문트 피닉스 프로젝트 대상지역 방문



피닉스 웨스트 지역 방문조사

5. 드레스덴 실리콘 삭소니 및 프라운호퍼 연구소 방문

□ 실리콘 삭소니의 개요

- 드레스덴에는 Globalfoundries나 Infineon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입지해 있어 실리콘 삭소니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2200개의 기업에 5만 8천 여명이 종사하고 있는 IT클러스터임
- 실리콘 삭소니는 인구밀집지역으로 동독의 대표적인 산업클러스터 지역
 - 작센 주는 전자 산업이 활성화 된 지역인데, 이는 세계 제2차 대전 이전부터 사회주의 국가인 동독의 전략적인 반도체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에 기인함
 - 기술대학(Technical university)과 대규모 국유회사가 함께 협력하는 구조를 통하여 극소전자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였음
- 동서독 통일 이후에 국유기업이 해체되면서 이들 회사의 가치사슬도 다각화 되었고, 그 과정에서 독일 연방정부의 과학자·엔지니어, 연구개발 인프라 등에 대한 R&D 투자로 다국적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게 되었고, ‘실리콘 삭소니(Silicon Saxony)’ 로 불리게 되었음
 - 통일 이후 독일 연방정부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850억 유로씩 1조2400억 유로를 동독지역에 투자하는 한편, 동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주었음
 - 드레스덴의 경우 응용연구소를 설립하여 사이언스파크와 연계된 첨단벤처 유치로 이루어지는 선순환의 구조 창출을 목표로 추진
- 이후, 독일 기업인 Infineon사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인 AMD, 독일 반도체 전문기업인 Wacker Siltronic사와 같은 대표적인

기업이 입지하면서 지역 생산시스템도 글로벌 반도체 산업 네트워크로 통합,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됨

- 현재는 미나폴리스(마이크로·나노전자 산업), 바이오폴리스, 사이언스폴리스, 매트폴리스(소재 기술·산업) 4개의 산업클러스터에 1500여개 기업이 입주하여 있음

□ 실리콘 작소니 산업기술혁신생태계 형성

- 4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독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막스플랑크연구소, 프라운호퍼연구소, 라이프니츠연구소 등을 유치·설립하여 지역의 산학연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형성을 촉진하고자 함
- 주요 산업의 대표적인 기업과 유명 연구소 유치를 통한 R&D 역량이 강화되자, 이 지역으로 관련된 중소기업도 이전해 오면서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가 형성
- 드레스덴은 유명 연구소의 R&D 인력 확보 과정에서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인력을 확충하는 과정을 통하여, 지역의 인적자원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
 - 대학 및 연구소와 기업이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은 실용적인 연구감각을 제고하는 동시에 교육시스템을 정비하였고, 연구소는 실제로 필요한 인력을 대학을 통해 충원
 - 기업은 실무 경험 및 연구 경험을 쌓은 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주변 대학·연구소를 통하여 R&D 역량을 강화
- 이 과정에서 드레스덴 정부는 지역의 연구소, 대학 및 기업을 지원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하여 산·학·연의 연계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산업구조로의 개편과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역할

-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1949년 바이에른 주정부의 후원을 받는 지역 비영리단체로 출발하여 1954년부터 자체연구소를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연합체로 운영
 - 프라운호퍼 연구회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위한 수탁연구와 응용 지향적인 자체연구를 수행하고, 대학과 협력하며 연구소를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보유·유지하며, 산하연구기관의 성공과 관련한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역할로 하나의 재정지원 모델 창출
 - 1970년대 이러한 구조를 프라운호퍼 모델로 정립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13년 현재 독일 전역에 66개의 연구소를 운영하여, 유럽 최대의 응용연구기관으로 안착함
- 최근에는 계약연구, 신기술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지역 기업의 특허 및 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무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프라운호퍼 연구소는 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의 비즈니스 생태계와 대학 및 기타 연구소를 통해 형성된 지식생태계를 기술사업화 전략을 통하여 연결시키는 일종의 네트워크 허브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시사점

- 심층평가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으로는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열악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효율적 재정지원방안 모색하는 것으로, 실제 노후화 된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역의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전략이 필수적임
 - 독일의 드레스덴 지역은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재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과학기술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정착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역할은 노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공간으로도 밀착 입지하여 지역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사업화라는 핵

심역할을 수행하여 성공사례의 중요 전략을 찾을 수 있음



실리콘 삭소니 내 기업입주 현황



실리콘 삭소니 내 기업과 프라운호퍼 연구소